

# 완도 '도시 종합개발' 추진... 생활 기반 시설 확충

106억 투입... 56개소 대상 정비 물양장 확장, 선착장·도로 손질 소규모 어항 개발 57억 추가 확보 "주민 삶의 질, 지역 활성화 모색"

완도군이 물양장을 확장하고 선착장·도로 정비, 경관 조성 등 도시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 생활 기반 시설 확충에 주력한다.

16일 완도군에 따르면 국비 106억원을 투입해 56개소를 대상으로 '2025 도시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도시 종합개발사업'은 도시 지역의 생활 기반 시설 정비 및 확충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행안부와 국토부 등 2개 부처가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장기 계속 사업으로 군은 지난 2017년도에 3차 계획을 마무리했으며 2018년부터 2027년까지 4차 계획(총 사업비 1180억원)을 수립해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149억원을 투입해 금일동 백지구 소규모 어항 정비 외 48개소의 사

업을 마무리한 바 있다. 올해는 국비 106억원을 투입해 △금일읍 소량도·월송리와 보길면 예작리·청별 물양장 확장 △노화읍의 북고리·충도리 선착장 정비 △근외면 흑일도 도로 정비 및 LPG 배관망 설치 △청산면의 노을길 경관 조성과 여서리 등산로 진입로 개설 △모동리 마을 안길 포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속원을 해결하고 사업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시 종합개발사업에서 배제 추진하지 못했던 소규모 어항 개발과 마을 진입로, 관광지 정비 등 주민 생활 및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비 57억원도 추가로 확보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도시 종합개발사업으로 생활환경이 개선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수산물의 원활한 생산과 수송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도시 지역을 활력 있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 영암군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28일까지 방문·우편 접수

영암군은 오는 28일까지 '2025년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의 지역 활동 기반 마련, 지역사회 활동 주체 성장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에는 5인 이상의 19~49세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고 구성인 60% 이상이 영암군민이어야 한다.

영암군은 5개 단체를 선정해 각각 과업수행비 600만원을 지급하고 단체간 교류·협력·네트워크화를 지원한다.

참여 희망 단체는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신청 서류를 작성해 영암군 인구청년과 청년지원팀(061-470-2553)에 방문·우편 접수하면 된다.

군은 신청 단체의 사업 계획서 중 활동 계획, 성과 목표 등을 놓고 1·2차 선별 심사를 거쳐 내달 16일 최종 선정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사업 선정 단체는 매월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말에 개최될 예정인 청년공동체 성과공유회에서 각 단체별 활동성과를 발표, 우수 공동체 선정 심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청년공동체가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청년들의 바람도 실현하도록 잘 뒷받침하겠다"며 "많은 청년 단체들의 공모 참여와 지역사회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 무안군, 논 콩 재배기술 교육 전략작물 육성 박차

무안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30여명을 대상으로 논 콩 재배기술 교육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논 콩 생산단지의 경쟁력 향상과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논 콩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병해충 방제 교육, 논 배수 관리에 대한 사례발표 및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다.

무안군은 간척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물빠짐이 좋은 토양에서 잘 자라는 논 콩 재배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강사로 참여한 정중석(사)한국 들녘경영체연합회 전남지회장은 지난 2023년부터 간척지에서 논 콩을 재배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간척지에서도 충분히 재배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알렸다.

한편 무안군은 하계작물직불사업(두류, 가루쌀, 옥수수, 깨, 조사료 등)과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옥수수, 깨, 조사료, 수급불안품목 외 일반작물 등)을 오는 5월30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신청받고 있다. **무안=김행언 기자**

## 친환경 전기차 보급 지원 확대 해남군, 최대 1700만원 지급

해남군이 친환경차 확산을 위해 전기차 보급부터 충전기 설치까지 생활에 밀착된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 소진 등 이유로 친환경차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은 보급 물량과 지원 규모를 전년 보다 확대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6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 중이다. 차량 가격 및 성능에 따라 최대 17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차량을 구매한 뒤 충전 환경에 대한 고민도 줄였다. 비공용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전기차 소유자라면 1기당 최대 13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지뿐 아니라 사업장 역시 주차부지만 확보돼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4일부터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도 본격 추진 중이다. 일반형은 물론 배터리 교환형 및 배달용까지 폭넓게 지원하며 차량 가격 및 성능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전기차를 구매하고도 충전 문제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급과 인프라를 함께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해남=전연수 기자**



신안군 파쇄지원단원들이 관내 한 농가를 찾아 과수 잔가지 등 영농부산물을 파쇄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 신안군,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적극 추진

신안군이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산불예방을 위해 지난달부터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16일 신안군에 따르면 2팀 10명으로 파쇄지원단을 꾸리고 주된 농산물인 배,

무화과, 포도 같은 과수 잔가지와 고춧대 등의 영농부산물을 중점적으로 파쇄하고 있다.

최근 29농가 12ha(189톤) 규모에서 파쇄를 완료했으며 농가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장에서

홍보 캠페인을 펼치는 등 지속적 홍보 활동도 지속해 왔다.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희망 농가는 각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농경지 불법소각 예방과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해 깨끗한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 강진군, 성전면 '효심이 빨래방' 개소... 돌봄 확대

### 마을부녀회 등 세탁물 수거·전달 "안부 등 돌봄서비스 동시 지원"

강진군이 맞춤형 복지정책 '효심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효심이 빨래방'을 개소했다.

16일 강진군에 따르면 효심이 프로젝트의 하나인 '성전면 효심이 빨래방'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은 기부금을 활용한 '강진군 고향사랑 기부사업'으로, 이불 등 세탁물 처리가 어려운 독거노인 취약계층 및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세탁물을 수거해 깨끗이 세탁한 뒤 배달까지 하는 윈스톱 서비스다.

지난 9일 진행된 개소식에는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군의회 서순선 의장, 성전면 이양교 노인회장 및 성전면 이장단, 성전면 새마을부녀회, 강진군 새마을회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강진군으로부터 효심이 빨래방 위탁 운영을 맡은 강진군 새마을회는 성전면 새마을부녀회와 협력해 이달부터 성전면 32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 5일, 마을별로



지난 9일 강진군이 성전면에 '효심이 빨래방' 문을 열었다. **강진군 제공**

수거 일정을 정해 세탁 및 건조 후 마을 경로당에 배달한다.

특히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성전면 새마을부녀회 및 이장단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세탁물을 수거하고 전달하면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및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고 돌봄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어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김은숙 강진군 군민행복과장은 "성전면 효심이 빨래방은 강진군 최초의 거점형 빨래방으로 성전면 어르신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개인위생을 개선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는 등 돌봄서비스까지 지원하는 정책이다"며 "이를 계기로 지역 어르신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은숙 기자**

## '무안연꽃축제' 새 이름 공모 전국민 대상, 25일까지 접수

무안군은 오는 6월26부터 29일까지 4일간 일로읍 화산백련지 일원에서 열리는 '제28회 무안연꽃축제'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축제 명칭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연꽃축제는 백련 개화 시기인 7·8월 중 개최됐으나,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앞당긴 6월 말에 열린다.

이에 따라 군은 연꽃 개화 시기에 얽매이지 않고 축제의 다양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축제 명칭 공모에 나서게 됐다.

축제 명칭은 기존 연꽃축제의 상표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화산백련지의 자연과 야간 경관이 어우러지는 축제 콘셉트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공모는 오는 25일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는 무안군 홈페이지 고시·공고(www.muang.go.kr)를 참고해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전자우편(hjung1112@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은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1명) 30만원, 우수상(1명) 20만원, 장려상(1명) 10만원의 시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선정작은 5월 중 개별로 통보할 예정이다.

박문재 무안군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연꽃이 피기 전 축제가 열린다 보니 관광객들의 기대와 현장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축제 명칭을 새롭게 만들려고 한다"며 "전국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을 통해 참신하고 매력적인 이름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행언 기자**